

## WILLIAM BREEN

2010.9.28 - 2010.10.16

FLINDERS LANE GALLERY,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글/유명신 Myeong shin Ryu

경기대학교 미술학부의 미술경영과를 졸업 후, 호주에서  
디자인서울 해외통신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르네상스시대 전까지의 회화는 주로 그림을 요구하는 주체 측의 요구에 맞추어 그리거나 교회 같은 성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회화가 이용되어 왔던 반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화가들은 자신들 그림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그림의 주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제 화가들은 장인으로서의 인식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주제들을 통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주위의 풍경들이 다른 주제와 동등하게 그림의 주제로서 화가들 사이에서 떠들기 시작하였으며 풍경은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만 감상하기 보다는 그것을 화폭에 어떠한 방식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이제 작가들은 자신만의 느낌과 화법으로 풍경이라는 주제들을 새롭게 화폭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서 풍경화의 한 획을 그은 화가를 떠올린다면 단연 영국의 윌리엄 터너를 들 수 있다. 그는 어릴적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자연의 광대함에 놀라곤 하였다. 그는 화가가 되고 나서 줄곧 풍경화만을 고집하였는데, 그의 그림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빛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은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동적인 면이 다분하다. 몽환적인 느낌과 자연의 동적인 느낌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화폭에 담은 그의 그림들에서 우리는 자연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윌리엄 브린의 그림 또한 터너의 그림처럼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둘 다 자연의 풍경을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린 것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터너와는 반대로 그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이용하여 차분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Breen Napoleon Hill 102x138cm, Oil on linen, 2010

전시장을 들어서면 깔끔하게 칠해져 있는 벽면에 걸려져 있는 그의 작품들을 마주하게 된다. 갤러리는 많이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으며 그림들은 깔끔하게 칠해진 베이지의 벽면에 전시되어져 무채색 느낌의 그림과 대비되어 그의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아라 벨리(Yarra Valley)를 여행하면서 만들 어낸 작품들로 꾸며져 있으며 그림들은 그림과 보는 관찰자 사이에 얇은 실크가 하나 얹어져 있는 듯 soft focus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몽환적인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다. 여행을 하다 자연을 마주하게 되면 바쁘게 지내왔던 대도시 한복판의 느낌과는 정 반대의 느낌, 조용하고 낯설지만 안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느낌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 내고 있다. 겨울의 자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무채색의 느낌을 이용하여 낯설은 느낌, 그가 아라 벨리(Yarra Valley)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드라마틱한 느낌과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느낌들을 그만의 화법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Magnolia way'란 제목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적한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이용한 soft focus는 이 그림의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해 내고 있는데 어스름한 아침의 느낌처럼 혹은 안개가 걸리지 않은 아침의 느낌으로 처음 맞는 대자연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과 함께 이제 곧 해가 떠오를 듯하게 한쪽은 빛이 비추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apoleon Hill'에서는 Napoleon 언덕에서 바라본 호주의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많은 나무들과 광야를 멀리까지 내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무채색의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soft focus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공간활용을 잘 표현하여 마치 관찰자가 직접 언덕에 올라 풍경을 내려다 보고 있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 'Uplands Road' 역시 그만의 특유의 기법들을 이용하여 그림을 평화롭고 신비로운 느낌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산악지대가 많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평지와 언덕, 낮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직접 볼 기회가 생각 보다 적은 우리로서는 그림속의 호주자연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더욱 평화로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초원을 바라보며 여행하는 중간 중간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자연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듯이 브린의 그림을 보고 있다면 호주의 광대한 자연과 함께 작가가 여행하면서 보아왔던 자연의 풍경을 자신만의 기법으로 아름답게 캔버스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호주를 여행하며 마주해 오던 호주의 모습보다도 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있는 듯 하다.

그의 그림을 보고 돌아 나오면서 지금까지 여행하며 느껴왔던 호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 이제까지 보아왔던 호주의 넓디 넓은 평야와 많은 숲들은 이방인으로서 느끼던 낯설음의 크기만큼이나 광대했다. 하지만 브린의 그림의 보고 돌아 나오면서 느껴진 호주의 모습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 오기 시작했다. 무채색의 자연을 통해서 그는 호주의 모습을 단조롭지만 담백하게 화폭으로 담아 내었으며 이것은 호주인으로서 바라본 자연과 그 느낌들을 애써 과대하게 포장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한 듯싶다. 인적이 드문 숲들 사이의 도로, 혹은 넓은 평지위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하늘을 담은 그의 그림들을 통해서 조용하고 사색적인 면모의 새로운 호주의 모습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게 되었다.

Breen Magnolia Way 82x102cm, Oil on linen, 2010

